

2023
고2 연매
지학사

고2 언어와 매체 지학사 | 4(2)(2) 국어 규범과 국어 생활의 성찰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다 빈출 유형 1

표준어 규정을 그와 관련된 예시를 분석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표준어에 해당하는 것을 묻는 문제의 경우, 자주 출제되는 예시 및 자신이 틀린 오답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 발음법과 관련하여서는 겹받침과 관련된 규정 및 모음 '니'에 대한 규정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지에서 해당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 답을 찾아야 합니다.

1. <보기>의 설명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일반적으로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 한 단어만을 표준어로 정하지만 더러는 둘 이상의 단어가 두루 쓰이고 있어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는 예도 있다.

- ① 깡총깡총 - 깡총깡총
- ② 가엿다 - 가엿다
- ③ 고까 - 꼬까 - 때때
- ④ 송이 - 송이버섯
- ⑤ 옥수수 - 강냉이

2. <보기>의 표준어 사정 원칙에 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서울말은 모두 표준어이다.

- ② 방언도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표준어가 될 수 있다.
- ③ 표준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써야 할, 실생활에서 두루 쓰이는 말이어야 한다.
- ④ 서울말이 표준어가 된 것은 서울이 오랫동안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 ⑤ '현대'라는 기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화하면 이에 따라 표준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3. 표준어 규정과 예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꼬나풀, 나팔꽃
- ②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예) 수캐, 수컷, 수탉
- ③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윗'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웃어른, 웃웃
- ④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예) 귀찮다-귀치 않다. 무-무우
- ⑤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예) 까막눈(0)-맹눈(X), 성냥(0)-화곽(X)

4. <보기>의 ㉠~㉣의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표준어와 관련하여 우리가 자주 혼동하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있다.

- ① 서울말은 모두 표준어이다.

• 윗니, 위쪽, 웃돈

㉠명사 '위'가 합성어를 이룰 경우에는 '윗-'으로 표기한다. 다만,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하고,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의 경우에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	㉢
①	윗배	위어른	웃웃
②	윗입술	위층	웃어른
③	윗층	위입술	웃배
④	위어른	위웃	웃층
⑤	윗웃	위배	웃입술

5. <보기>를 바탕으로 ㉠~㉣의 적절성을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편 발음과 관련하여 받침 '래'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밟-'은 예외적으로 자음 앞에서 [ㅃ]으로 발음한다. 그리고 받침 '리'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용언의 어간 발음 '리'은 'ㄹ' 앞에서는 [ㄹ]로 발음한다.

- ㉠ 넓다[널따], 넓고[널꼬], 넓지[㉠널찌]
- ㉡ 밟다[㉡밟:따], 밟고[밟:꼬], 밟지[밟:찌]
- ㉢ 닭[㉢닥], 닭과[㉢닥꽂], 닭도[닥또]
- ㉣ 읽다[익따], 읽고[㉣익꼬], 읽지[익찌]

- ① '넓다'의 받침 '래'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은 적절하군.
- ② '밟-'은 예외적으로 자음 앞에서 [ㅃ]으로 발음되므로 ㉡는 적절하군.

- ③ '닭'의 받침 '리'은 어말에서 [ㄹ]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는 적절하군.
- ④ '닭'의 받침 '리'은 자음 앞에서 [ㄹ]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는 적절하군.
- ⑤ '읽고'의 받침 '리'은 자음 앞에서 [ㄹ]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는 적절하군.

6. <보기>를 바탕으로 '니'의 발음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니'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발음된다. 조사 '의'의 경우 [계]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로 적어서는 안 된다.

- 널리리[널리리], 무늬[무니], 띄어쓰기[띠어쓰기/띠여쓰기], 희망[희망]
 -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니]로 발음함.
- 주의[주의/주이], 협의[허브/허비], 우리의[우리의/우리에], 남의[남의/남메]
 - ↳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의]로, 조사 '의'는 [계]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함.

- ① '의사'의 '의'는 첫음절이므로 [의사]로 발음해야 한다.
- ② '강의'의 '의'와 '친구의'의 '의' 모두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나의 집'의 '의'는 조사이므로 [나에집]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 ④ '하늬바람'의 '니'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므로 [하늬바람]으로 발음해야 한다.
- ⑤ '조의금'의 '의'는 첫음절 이외의 '의'이므로 [조이금]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7. <보기>의 표준 발음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ㄴ(ㄴ, ㄷ, ㄸ, ㄹ), ㄷ(ㄷ, ㅌ, ㄷ, ㄹ), ㄴ(ㄴ, ㄷ, ㄸ, 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ㄴ, ㅁ, ㄴ, ㄷ’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ㄴ, ㄷ, ㄹ’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

제27항 관형사형 ‘-(으)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ㄴ, ㅁ, ㄴ, ㄷ’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붙임] ‘-(으)ㄴ’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 ① ‘꽃다발’, ‘(신을) 신고’에서의 된소리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 ② ‘(옆에) 있던’과 ‘(내가) 갈 곳은’에서의 된소리는 각각 ㉠와 ㉣에 따른 것이다.
- ③ ‘(감기를) 옮기다’와 ‘(품에) 안기다’에서의 된소리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 ④ ‘(아기를) 껴안고’와 ‘끓기다’는 모두 ㉢에 따라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
- ⑤ ‘사랑할수록’과 ‘사랑할지언정’에서의 된소리는 각각 ㉣와 ㉤에 따른 것이다.

8. <보기>의 표준 발음법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ㄴ(ㄴ, ㄷ, ㄸ, ㄹ), ㄷ(ㄷ, ㅌ, ㄷ, ㄹ), ㄴ(ㄴ, ㄷ, ㄸ, ㄹ)’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붙임 1] ‘ㄴ’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ㄴ]로 발음한다.

[붙임 2]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① ‘앞마당’은 제18항에 따라 [암마당]이라고 발음해야겠군.
- ② ‘한여름’은 제29항에 따라 [한녀름]으로 발음해야겠군.
- ③ ‘솔잎’은 제29항의 [붙임 1]에 따라 [솔림]으로 발음해야겠군.
- ④ ‘할 일’은 제29항의 [붙임2]에 따라 [할릴]이라고 발음해야겠군.
- ⑤ ‘색연필’은 제18항과 제29항의 순서에 따라 [생년필]로 발음해야겠군.

9. <보기>는 받침이 연음과 관련된 표준 발음법이다. 각 항과 관련된 예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제13항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붙임]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①	제13항	앞으로[아프로], 걸쯏[거돋]
②	제14항	쫓아[쫓차], 앓아[안자]

③	제14항	없어[업:씨], 있어[이씨]
④	제15항	헛웃음[허두슴], 꽃 위[꼬뒤]
⑤	제15항	값을[갑쓸], 값어치[가버치]

최다 빈출 유형 2

외래어 표기법 및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적용이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표준어 규정과 달리 구체적인 규정과 예시의 관계를 묻기보다는 단순히 표기가 올바른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별도의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출제되었으므로 기본적인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10.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래어는 발음이나 형태, 용법 등이 우리말의 특징을 지닌다.
- ②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국어로 적기 위한 규정이다.
- ③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에 대한 일관된 표기 원칙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④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로마자로 옮기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 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실제 발음을 중심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book - 북
- ② jazz - 짜즈
- ③ film - 필름
- ④ Mozart - 모차르트
- ⑤ coffee shop - 커피숍

12.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로 적절한 것은?

- ① cake - 케익
- ② alcohol - 알콜
- ③ accent - 액센트
- ④ slide - 슬라이드
- ⑤ placard - 플래카드

13. 다음 중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구리 - Guri
- ② 백암 - Baekam
- ③ 속리산 - Songnisan
- ④ 칠갑산 - Chilgapsan
- ⑤ 대관령 - Daegwallyeong

14. <보기>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규정에 맞게 표기된 것은?

<보기>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예) 백마 Baengma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예) 학여울 Hangnyeoul
3.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예) 좋고 joko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붙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압구정 Apgujeong

2023
고2 연매
지학사

고2 언어와 매체 지학사 | 4(2)(2) 국어 규범과 국어 생활의 성찰 서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다 빈출 유형 1

외래어 표기법 및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적용하는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의 경우 받침에서 'ㄷ' 대신 'ㅌ'을 사용하여 표기한다는 사실을 그 이유와 함께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경우,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되, 된소리되거나 인명 표기처럼 예외적인 사례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 <보기>에 제시된 밑줄 친 ㉠의 올바른 외래어 표기를 적고, 그렇게 쓰는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영수는 탁구 ㉠racket이 든 가방을 들고 운동을 하러 나갔다.

<조건>

1. 관련된 외래어 표기의 원칙을 함께 서술할 것.
2. 우리말 음절 끝 받침에서 나는 소리와 비교하여 서술할 것.

2. <보기>에 제시된 밑줄 친 ㉠의 올바른 로마자 표기를 적고, 그렇게 쓰는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왕십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일대의 지명이다. 예로부터 서울 동부 일대의 중심지로 알려졌던 곳이다.

<조건>

관련된 로마자 표기 원칙을 함께 서술할 것.

3. <보기>에 제시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2항 원칙의 예외로 불임표를 사용하는 경우를 두 가지 서술하고, 그 경우의 예를 각각 제시하시오.

<보기>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내신형 기출 문제

1. **정답** ①

표준어 규정 제2장 제8항에 따라 '강충강충'만 표준어에 해당한다.

② 표준어 규정 제3장 제5절 제26항에 따라 둘 다 표준어에 해당한다.

③ 제2장 제5절 제19항과 제3장 제5절 제26항에 따라 셋 다 표준어에 해당한다.

④ 제3장 제5절 제26항에 따라 둘 다 표준어에 해당한다.

⑤ 제3장 제5절 제26항에 따라 둘 다 표준어에 해당한다.

2. **정답** ①

표준어가 현대 서울말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맞으나, 모든 서울말이 표준어인 것은 아니다.

② 표준어는 실제 언중의 언어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이 널리 쓰이는 경우 표준어가 될 수 있다.

③ 표준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지정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실생활에서 두루 쓰이는 말이어야 한다.

④ 서울이 오랫동안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지였던 것을 고려하여 표준어의 기반으로 서울말을 택했으며, 거기에 실제 언중의 언어생활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원칙을 지정하였다.

⑤ '현대'라는 기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화하면 이에 따라 표준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주며, 실제로 언중의 언어생활에 따라 표준어였던 것이 비표준어가 되거나 비표준어가 새롭게 표준어가 되기도 한다.

3. **정답** ④

'귀찮다-귀치 않다', '무-무우'는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아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에 해당한다.

① '꼬나불' 대신 '꼬나풀'을, '나발꽃' 대신 '나팔꽃'

을 표준어로 지정한 것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에 해당한다.

② '수캐, 수컷, 수탉'의 경우, 접두사 '수-'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어지는 자음의 첫소리가 거센소리로 나는 것을 표준어로 삼은 것에 해당한다.

③ '웃어른'과 '웃웃(맨 곁에 입는 웃)' 모두 위아래의 대립이 없기 때문에 '윗-'이 아닌 '웃-'을 표준어로 삼은 것에 해당한다.

⑤ '까막눈(0)-맹눈(X)'과 '성냥(0)-화곽(X)' 모두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어 고유어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에 해당한다.

4. **정답** ②

'윗입술'은 '위+입술'로 구성된 합성어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위층'의 경우 '위-'가 거센소리 앞에 결합하였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웃어른'의 경우 위아래의 대립이 없기 때문에 ㉢의 예로 적절하다.

① '윗배'는 '위+배'로 구성된 합성어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위어른'의 경우 위아래의 대립이 없기 때문에 ㉢에 따라 '웃어른'과 같이 써야 한다. '웃웃'의 경우, '맨 곁에 입는 웃'의 의미로 쓰인 경우로 위아래의 대립이 없기 때문에 ㉢의 예로 적절하다.

③ '윗층'의 경우 '위-'가 거센소리 앞에 결합하였으므로 ㉡에 따라 '위층'으로 써야 한다. '위입술'은 '위+입술'로 구성된 합성어이며, 위아래의 대립이 있고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 쓰이지 않았으므로 ㉠에 따라 '윗입술'로 써야 한다. '웃배'의 경우 위아래의 대립이 있고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 쓰이지 않았으므로 ㉠에 따라 '윗배'로 써야 한다.

④ '윗어른'의 경우 위아래의 대립이 없기 때문에 ㉢에 따라 '웃어른'으로 써야 한다. '상의'의 의미로 쓰였다면 ㉠에 따라 '윗옷'으로 써야 하며 '맨 곁에 입는 웃'의 의미로 쓰였다면 ㉢에 따라 '웃웃'으로 써야 한다.

⑤ '윗웃'의 경우 '위+웃'으로 구성된 합성어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위배'의 경우 위아래의 대립이 있고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 쓰이지 않았으므로 ㉠에 따라 '윗배'로 써야 한다. '웃입술'의 경우 위아래의 대립이 있고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 쓰이지 않았으므로 ㉠에 따라 '윗입술'로 써야 한다.

5. **정답** ⑤

'읽고'는 용언의 어간 말음 '리'이 'ㄱ' 앞에서 소리 나는 경우이므로, 받침 '리'을 [ㄹ]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㉔는 [일꼬]가 되어야 한다.

① '넓다'의 받침 '래'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음 'ㄷ' 앞에서 [ㄹ]로 발음한 ㉔는 적절하다.

② 자음 앞에서 받침 '래'이 [ㄹ]로 발음되는 것과는 달리, '뱃-'은 예외적으로 자음 앞에서 [ㅃ]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자음 'ㄷ' 앞에서 [ㅃ]으로 발음한 ㉔는 적절하다.

③ '닭'은 체언이므로, 받침 '리'은 어말에서 [ㄱ]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어말에서 [ㄱ]으로 발음한 ㉔는 적절하다.

④ '닭'은 체언이므로, 받침 '리'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자음 'ㄱ'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 ㉔는 적절하다.

6. **정답** ④

'하늬바람'의 '니'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므로 [니]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하늬바람]이 맞는 발음이다.

① '의사'의 '의'는 단어의 첫음절이며,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의사]로 발음하는 것만이 원칙이다.

② '강의'의 '의'는 단어의 첫음절이 아니므로,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니]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친구의'의 '의'는 조사이므로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 '나의 집'의 '의'는 조사이므로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⑤ '조의를'의 '의'는 첫음절 이외의 '의'이므로 [니]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니]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7. **정답** ②

'(옆에) 있던'은 받침 'ㅆ'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므로 ㉔에 따른 것이며, '(내가) 갈 곳은'은 관형사형 어미 '르'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① '꽃다발'은 받침 'ㅈ'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므로 ㉔에 따른 것이지만, '(신을) 신고'는 용언의 어간 받침 'ㄴ'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③ '(감기를) 옮기다'와 '(품에) 안기다'는 접미사 '-기-'가 결합한 것이므로, ㉔에 따라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④ '(아기를) 껴안고'는 어간 받침 'ㄴ' 뒤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한 것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반면 '굶기다'는 접미사 '-기-'가 결합한 것이므로, ㉔에 따라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⑤ '사랑할수록'과 '사랑할지언정'은 모두 'ㄹ'로 시작하는 어미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것이므로 ㉔에 따른 것이다.

8. **정답** ⑤

'색연필'은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여'가 오는 합성어이므로 제29항에 따라 [색년필]과 같이 발음해야 하며, 이후 제18항에 따라 [생년필]로 발음해야 한다.

① '앞마당'은 받침 'ㅍ'이 'ㄹ' 앞에서 소리 나는 경우이므로, 제18항에 따라 [암마당]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② '한여름'은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여'가 오는 파생어이므로 제29항에 따라 [한녀름]으로 발음해야 한다.

③ '솔잎'은 'ㄹ'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니'가 첨가되는 경우이므로, 제29항의 [붙임 1]에 따라 [솔립]으로 발음해야 한다.

④ '할 일'은 'ㄹ'로 끝나는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를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이므로, 제29항의 [붙임2]에 따라 [할릴]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9. **정답** ④

'헛웃음'은 받침 뒤에 모음 'ㅜ'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이므로 제15항에 따라 [허두슴]으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꽃 위'의 경우에도 받침 뒤에 모음 'ㅜ'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이므로 제15항에 따라 [꼬뒤]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앞으로'는 'ㅍ'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이므로 제13항에 따라 [아프로]로 발음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겉옷'은 받침 뒤에 모음 'ㅂ'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이므로 제15항에 따라 [거돋]으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쫓아'는 'ㅈ'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이므로 제13항에 따라 [쫓차]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 '앉아'는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이므로 제14항에 따라 [안자]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없어'는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이므로 제14항에 따라 [업써]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있어'는 쌍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이므로 제13항에 따라 [이써]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값을'은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이므로 제14항에 따라 [갑쓸]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값어치'는 겹받침 뒤에 모음 'ㄷ'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이므로 제15항에 따라 [가버치]으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정답** ②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국어로 적기 위한 규정이다.

①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유래되었으나, 발음이나 형태, 용법 등이 우리말의 특징을 지닌다는 점에서 우리말 단어에 포함된다.

③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에 대한 일관된 표기 원칙을 제공함으로써 외래어를 다양하게 쓰는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④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로마자로 옮기는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우리말로 표기된 인명이나 지명 등의 고유 명사를 로마자로 적기 위해 주로 활용된다.

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한글 철자를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정답** ②

외래어 표기에는 원칙적으로 된소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재즈'가 옳은 표기이다.

①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 [k]는 받침

으로 적으므로 적절하다.

③ 'f'는 '프'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적절하다.

④ 외래어 표기에는 원칙적으로 된소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⑤ 외래어 표기에는 받침으로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사용하므로 적절하다.

12. **정답** ⑤

'placard'는 '플레카드'와 같이 적는 것이 적절한 표기이다.

① 'cake'는 '케이크'와 같이 적는 것이 적절한 표기이다.

② 'alcohol'은 '알코올'과 같이 적는 것이 적절한 표기이다.

③ 'accent'는 '악센트'와 같이 적는 것이 적절한 표기이다.

④ 'slide'는 '슬라이드'와 같이 적는 것이 적절한 표기이다.

13. **정답** ②

'ㄱ'은 모음 앞에서는 'g'로 적으므로, 'Baegam'이 옳은 표기이다.

①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적으므로 적절하다.

③ '속리산'은 [송니산]으로 소리 나므로 적절하다.

④ '칠갑산'은 [칠갑싼]으로 소리 나지만,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⑤ 'ㄹㄹ'은 'll'로 적으므로 적절하다.

14. **정답** ④

'셋별'은 [샌뻬]과 같이 소리 나지만,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saetbyeol'과 같이 적는 것이 적절하다.

① '알약'은 [알략]과 같이 소리 나므로 'allyak'으로 적어야 한다.

② '집현전'은 [지편전]과 같이 소리 나지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으므로 'Jiphyeonjeon'으로 적어야 한다.

③ '종로'는 [종노]와 같이 소리 나므로, 'Jongno'로 적어야 한다.

⑤ '낱지'는 [나치]와 같이 소리 나므로, 'nachi'로 적어야 한다.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이며,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므로 적절하다.

① '꿈'은 '꾸-+-ㅁ'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며,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므로 ㉠와 ㉡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거름'은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이며,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므로 적절하다. 하지만 '눈물'은 합성어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② '뒤뜰', '쌀알', '낮잠' 모두 합성어이며, '쌀알'과 '낮잠'은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은 예에 해당한다.

③ '이파리, 무덤'은 파생어이며,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므로 적절하다. 하지만 '길이'는 파생어 중에서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은 예에 해당한다.

④ '노름'은 파생어이며,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므로 적절하다. 하지만 '얼음, 곰곰이'는 파생어 중에서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은 예에 해당한다.

22. 정답 ①

학생 1: '꺼져 갔다'는 '본용언+--아/--어+보조 용언' 구성으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학생 2: '닭아 가다'는 '본용언+--아/--어+보조 용언' 구성으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학생 3: '읽어도 보았다'는 본용언에 조사가 붙었으므로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학생 4: '잊어 먹었다'는 '본용언+--아/--어+보조 용언' 구성으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학생 5: '밀어내 버렸다'는 앞말이 합성어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23. 정답 ④

'일찍이'는 부사 '일찍'에 '-이'가 붙은 것으로, 제25항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는다.

① '먹이'는 용언 어간 '먹-'에 '-이'가 결합하여 명사가 된 것으로, ㉠에 따라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었다.

② 비료를 의미하는 '거름'은 어간에 '-음'이 결합하여 명사가 되었지만, 어간의 뜻과 멀어졌으므로 ㉡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다.

③ '귀머거리'는 용언 어간 '먹-'에 '-이'나 '-음' 이

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명사가 된 것으로, ㉡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다.

⑤ '덧개'는 용언 어간 '덧-'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명사가 된 것으로, ㉠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었다.

24. 정답 ③

문장의 의미를 고려할 때 적절하게 띄어 썼다.

① ㉠의 '큰집'은 '크기가 커다란 집'을 의미하므로, '큰 집'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② ㉡의 '큰 아버지'는 '아버지의 형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므로 '큰아버지'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④ ㉢의 '작은 집'은 '작은아버지의 집'을 의미하므로, '작은집'과 같이 붙여 써야 한다.

⑤ ㉣의 '큰 집'은 '집안의 맏이가 사는 집'을 의미하므로, '큰집'과 같이 붙여 써야 한다.

서술형 기출 문제

1. 정답 '라켓'이 바른 표기이다. 외래어의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우리말 음절 끝 받침에서는 [ㄷ]으로 소리 나지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등이 이어질 때, 'ㅅ'으로 연음되는 것을 고려하여 'ㅅ'으로 표기한다.

2. 정답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국어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이 원칙이며, 고유 명사는 첫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따라서 고유 명사인 왕십리는 [왕심니]와 같이 소리 나는 것을 고려해 'Wangsimni'로 적는다.

3. 정답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Song Na-ri'와 같이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Jeju-do'처럼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의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4. 정답 'robot'은 '로봇'으로 쓴다. 'robot'의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등이 이어질 때, 'ㅅ'으로 연음되어 [로봇을/로봇에]와 같이 소리 나기 때문이다.